

정흠문, 중국 첫 올림픽 테니스 단식 금메달... 아시아 선수 최초



패리올림픽 테니스 여자 단식 결승전이 지난 3일 진행된 가운데 중국 선수 정흠문이 2-0(6:2, 6:3)으로 크로아티아 선수 위키치를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중국의 첫 올림픽 테니스 단식 금메달이다. 동시에 정흠문은 올림픽 테니스 단식을 제

패하고 이 종목 올림픽 최고 시상대에 선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됐다. 경기가 시작된 후 정흠문은 비교적 일찍 경기에 몰입했고 신속히 첫 2세트를 따냈다. 3세트에서 정흠문은 '더블폴트'(双误)가 나왔으나 무난히 서브권을 지켜냈다. 몇번의 버티

기 끝에 정흠문은 첫판을 가져왔다. 두번째 판에서 위키치는 페이스를 찾은 듯했다. 두 선수는 서로 점수를 바짝 쫓으며 경기를 이어갔다.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두 선수는 심판과 몇차례 아웃라인 논쟁을 벌였지만 경기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두번째

판 후반에 위키치는 점차 뒤쳐지자 초조함에 라켓을 땅에 내리꽂으며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정흠문은 시종 비교적 평정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낳았다.

이날 경기에서 정흠문은 오른쪽 다리에 다시 봉대를 감았다. 경기후 그는 "3라운드 이후 계속 아픈 상태였고 또 계속 봉대를 감고 경기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다."며 "런속 5일 5경기를 뒀던 것은 처음인데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계 랭킹 7위인 정흠문은 그동안 국제대회에서의 최고 성적이 2024년 오스트리아오픈 준우승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그는 이를 연속 고온 날씨 속 실외에서 3시간이 넘는 강행군을 펼쳤고 잇달아 승리를 거두었다. 이 밖에 준결승에서는 자신이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현 세계 랭킹 1위 시비옹테크(뽀스까)를 꺾었다.

한편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팀은 테니스 종목에서 금메달 한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했는데 모두 신기록을 세웠다. 그전까지 중국팀이 올림픽 테니스 여자 단식 종목에서 거둔 가장 좋은 성적은 2008년에 리나가 이룩한 4등이었다. 아시아 선수의 복식 우승은 한차례 있었다. 중국의 손첩점, 리정 조합이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합작해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 신화사

연변룡정팀 새 감독에 한국적 이기형



연변룡정축구구락부 틱톡 공식계정 캡처사진

8월 5일 오전, 연변룡정축구구락부는 틱톡 공식계정을 통해 한국적 이기형이 연변룡정축구구락부 감독으로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이기형(1974년생)은 2022년 12월 9일 한국 프로축구 2부 리그 성남 FC 감독직에 선임됐고 2024년 3

월 20일 성남 FC 감독직에서 경질됐다. 앞서 8월 4일 저녁, 연변룡정축구구락부는 틱톡 공식계정을 통해 이만 콰드라도 감독과의 리별을 발표하면서 축복을 전했다. / 김파기자

연변동성축구클럽 슛돌이들 '대련홍성'컵서 또 한번 우승



8월 2일, 제 4회 '대련홍성'컵 전국 중소학생 축구초청경기가 대련시 금보신구축구공원에서 원만히 결속되었다. 5일 동안 치열한 각축전을 펼친 이번 초청경기에서 연변, 청도, 적봉, 산서, 오르도스, 대련 등 6개 도시에서 온 22개 팀이 상호 뛰어난 기술과 팀워크를 선보이며 경기에 활기를 더했다. 88차례에 이르는 경기 모두 청소년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충만되었다. 비록 경기는 끝났지만 모든 참가자들은 '대련홍성'컵을 통해 우의와 경험을 쌓고 한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련홍성'은 대련지역의 전통적인 중소학생 축구경기로 역대 경기 모두 전국 각지 수많은 청소년축

구클럽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바 지금까지 총 100개에 가까운 팀, 2,000명 넘는 청소년 선수들이 '대련홍성'컵에 참가했다. 나아가 전국 유소년 축구클럽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동성축구구락부 선수들은 15조별 우승을 따냈다. 이와 함께 전태호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권영학 지도가 최우수코치상을 수상하고 13조 -14조가 도덕기 풍상을 수여받았다.

연변동성축구구락부는 지난 6월에 열린 2024 중국야태지성 솔병향 솔갑 전국 청소년 축구초청경기(장춘역)에 이어 또 한번 우승 트로피를 받아안은 영예를 누리며 두각을 드러냈다. / 김영화기자

중국 수영, 미국의 40년 독주 저지하고 최정상에 우뚝



패리올림픽 수영 종목이 4일 마지막 경기일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팀은 40년에 달하는 미국의 독주를 깨버리고 남자 혼계영 400미터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남자 혼계영 400미터 계주 경기에서 중국팀은 서가여(배영), 담해양(평영), 손가준(집영), 반전락(자유형)을 출전시켰다. 두번째 레이스까지 중국팀은 1위를 유지했고 3번째 레이스에서 3위로 잠시 떨어졌지만 마지막 레이스에서 당일 마침 20세 생일을 맞은 반전락이 구간 기록 45초 92로 역영하며 역전 드라마를 완

성했다. 이로써 중국팀은 이 종목에서 40년간 올림픽 '최강자' 자리를 지켰던 미국과 주최국 프랑스를 나란히 제치고 3분 27초 46으로 우승했다. 중국의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은 8위였다. 이는 또 중국 수영군단의 이번 대회 두번째 금메달(다른 하나는 남자 자유형 100미터에서 우승한 반전락의 신기록 금메달)이다. 2관왕에 오른 반전락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자 가장 좋은 생일선물이 되었다.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 신화사

패리올림픽 경기장 활주로, 왜 보라색일까?

2024년 패리올림픽이 한창 치열한 진행중에 있다. 그중 가장 많이 토로되는 것이 아마도 '육상경기장의 라벤더밭' - 보라색 육상활주로나 아닐까 싶다.

2016년, 리오데자네이로올림픽에서도 붉은색이 아닌 파란색 활주로를 사용했다. 사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활주로 색상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보라색일까? 패리올림픽조직위원회와 국제육상경기리맹(IAAF), 국제올림픽중

계서비스회사(IOC)가 합의한 결과 올해 올림픽 경기장 활주로는 전통적인 붉은색이 아닌 보라색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중 연보라색이 활주로구역이고 짙은 보라색은 씨비스구역, 활주로 끝에 있는 회전구역은 회색이다.

이에 대해 2024년 패리올림픽 육상운동을 책임진 체육매니저 알렉 브롱데르는 "이전에 우리가 보던 활주로와는 다른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위원회가 설립 이래 유지해온 창조적 방식을 유지하고 틀을 깨뜨리기 위한 것

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목표가 틀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보라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없다.

이외 패리올림픽 육상 종목 책임자이며 프랑스 10종 경기 은퇴 선수 알랭 브롱데르는 보라색 트랙의 색상 영향에 대해 이런 설계를 중계할 때 관중석과 강한 대비를 이루어 선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선수가 발휘를 잘하도록 하는 데 도움되며 선수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료해에 따르면 색조는 볼 때 보라색은 차가운 색조에 속하며 축소감을 주기에 평정하고 차분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보라색과 같이 차가운 색조에 속하는 파란색과 다르게 일부 따뜻한 색조, 사람에게 전진감과 확대감을 주는 붉은색을 조금 섞었다. 즉 보라색은 붉은색의 열정과 파란색의 차분함을 결부해 진정성을 주면서도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며 정서의 균형과 차분함, 그리고 의욕을 가지게 한다.

/ 인민넷 조문판

이것이 올림픽! 중조한 선수들 찰카 셀카로 소중한 장면 기록!



7월 30일 저녁(북경시간), 패리올림픽 탁구 혼성혼합 결승전에서 중국팀 왕초쑤/손영사팀은 4-2로 조선팀을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조선팀이 은메달을 따고 한국팀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가 끝난 후 손영사는 중조한 선수들이 함께 셀카 사진을 찍도록 지휘했는데 그야말로 따뜻한 장면이었다.

/ 중앙방송

길림 선수들, 아시아줄넘기선수권대회서 1금 4은 2동



7월 28일, 2024 아시아줄넘기선수권대회가 일본 가와사키에서 막을 내렸다. 중국줄넘기대표팀은 268명의 선수를 파견했는데 그중 길림성에서 8명의 어린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일본, 인도, 이란,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2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7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9세 -11세 여자부에서는 해방대로소학교 우찬이, 장중정월명택학 교 윤희명이 2x30초 더블스윙 릴레이에서 나란히 우승하고 4x30초 싱글스윙 릴레이에서는 준우승을 기록했다. 또한 우찬이는 9세 -11세 여자부 30초 싱글스윙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장춘시남관구화택

학교의 호예림은 개인 프리스타일에서 2위, 2인 프리스타일에서 동료와 함께 2위를 차지했다.

12세 -15세 여자부에서는 길림성제 2실험학교 장의몽, 장춘시제 68중학교의 장옥곤, 길림시제 5중학교의 왕일약, 길림시육문중학교의 류심죽으로 구성된 계주팀이 4x30초 싱글스윙 릴레이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왕일약과 류심죽은 2x30초 더블스윙 릴레이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아시아줄넘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줄넘기리맹이 주최했다. 이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최고 수준, 최대 영향력을 가진 국제 줄넘기대회의 하나이다. / 인민넷 - 조문판